

과거와 미래 속의 독도

-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인천해원중학교
동아리(팀)명	강치호걸스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저희의 100일 기록을 함께할 팀의 명칭을 정할 때에 팀원들은 팀의 명칭을 통해서도 독도에 대한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고민 끝에 탄생한 팀 명칭이 '강치호걸스'였습니다. '강치호걸스'는 3가지의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3가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독도의 수호신인 강치를 지키고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강치護girls'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둘째, 독도가 일본의 역사로 새겨질 위기에 처한 지금 저희가 독도 사랑의 첫 걸음을 떼어 독도 수호신과 같이 되어 보고자 '강치號girls'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셋째,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10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영웅들과 같이 용기를 잃지 말자는 뜻에서 '강치豪傑's'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강치호걸스 >

저희 '강치호걸스'의 팀 구성원은 팀장 여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굳은 단합력을 가지고 활동함으로써 Hero계의 어벤져스를 능가할 수 있는 독도 사랑계의 영웅들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강치호걸스'는 총 4명으로 첫째, 팀장 여민서는 강한 리더십으로 팀원 모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도 크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독도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급 부회장을 맡으면서 학급을 훌륭히 이끌어 나가는 모습에서 검증된 그녀의 리더십은 100일 간의 여정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 팀원 김소영은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더 효과적으로 독도에 관해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독도에 대한 정보나 역사적 배경과 같은 사실들을 저희들의 눈높이에서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그녀는 평소 구김 없는 성격으로 매사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독도 홍보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은 물론이며, 팀장과 함께 팀을 앞에서 이끌어 줄 팀원입니다. 셋째, 팀원 조아현은 앞의 두 팀원이 팀을 전진시키는 존재라면, 팀이 지치고 힘들 때, 팀원을 격려하고 포용해줄 수 있는 나무그늘 같은 존재와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그녀의 모습은 팀이 100일이라는 장기간의 여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 박자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제공해 줄 팀원입니다. 넷째, 팀원 송시현의 경우 강한 행동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끈기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어떤 활동을 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팀원입니다. 100일간의 긴 시간동안 모두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마지막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게 해줄 것이라 기대되며, 그 열정적인 모습은 팀뿐만 아니라 독도 사랑의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남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여민서	2	팀장으로 전체 계획 확인, 활동상의 문제점 수정
2	김소영	2	독도의 중요성 설명, 일반 시민 대상 독도 홍보, 효율적인 독도 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 어른을 대상으로 한 독도 홍보
3	송시현	2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도 홍보(보다 친근하고 쉬운 설명을 통한 독도에 대한 관심 유도), 배포 자료의 제작
4	조아현	2	다른 팀원의 격려, 제작물에 대한 아이디어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과거와 미래 속에서 독도의 위치 알리기

- 주제 선정 이유 : 21세기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 북한과의 관계 변화, 일본의 대한민국 압박 등 많은 국제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갈등과 더불어 미래에 가치 있는 자원을 둘러싼 대립에서 비롯되어 지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독도 문제가 그 중 하나라 독도는 과거 어떤 역사를 지니며, 미래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단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한다.” 라고만 말한다면 먼 미래의 독도는 일본의 땅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우리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도에 관해 아는 것도 없는데 한국 땅이라고 주장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독도에 관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분에게 독도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이 독도의 가치를 파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래’라는 주제와 현재를 만든 과거에 독도는 어떤 의미를 가졌고, 우리의 역사 속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과거’라는 주제를 선택해 두 가지의 의미를 어린이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여 홍보할 수 있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독도의 위치 알리기’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 기간** : 2018.5.12. ~ 2018.8.10

○ **추진 방법** :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과 청년들이 많이 찾는 곳, 가족들이 함께 자주 오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독도 홍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린이가 많은 어린이집과 학원가에서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있어 포스터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쉽게 독도에 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 동생들이 있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설명이 능숙한 송시현 팀원을 중심으로 '사탕을 활용한 퀴즈'같은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청년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는 경인아라뱃길을 우선 홍보 지역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젊은 커플들에게는 커플게임을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즐거운 추억이 되는 동시에 독도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팀원 중 가장 논리적인 설득력이 뛰어난 김소영 팀원을 중심으로 이구동성 퀴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족단위로 이동객이 많은 지역으로는 인천 자유공원을 선택하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아이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에 독도가 즐거움으로 자리매김하여 과거와 현재를 함께하는 부모님들과 미래를 나아갈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독도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2018.5.12	활동 계획 수립	반도유보라 2차	<p>▶ 활동 지역 선정(가족 단위의 나들이 지역을 주요 지역으로 검색하여 인천자유공원과 인천대공원, 아라뱃길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함.)</p> <p>▶ 홍보 활동을 위한 제작물 기획(퀴즈 프로그램의 기획,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 결과 음악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함. 활동지를 제작하여 독도 알리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결정함.)</p>

2018.5.19. ~5.20	홍보물 재료구입 및 제작	e-마트, 반도유보라 2 차	<p>▶ 홍보용 종이와 포스터 제작(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300부를 인쇄하였으며, 포스터의 경우 모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지를 활용하여 제작함.)</p> <p>▶ 가족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초콜릿과 젤리를 준비하여 포장하였으며, 독도 홍보활동에 참여하였음을 기념할 수 있는 작은 명함을 제작하여 준비함.</p>
2018.5.22	<p>▶가족 대상으로 하여 독도 관련 게임 진행</p> <p>▶독도 가사 맞추기 프로그램 진행</p> <p>▶독도의 가치에 대한 알림활동 진행</p>	인천자유공원	<p>▶ 08:58 독도 홍보를 위한 자리의 정비 및 홍보물 확인, 활동 내용 촬영 준비</p> <p>▶ 09:31 독도 홍보 활동 시작(가족 단위 퀴즈 게임 등 진행.) 조원 중 어린이와의 소통이 가장 뛰어난 송시현 팀원이 어린이와 함께 퀴즈를 풀어나감.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대상으로는 김소영 팀원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조아현 팀원이 가족들에게 소감을 한 줄로 받아 게시판에 부착함.</p> <p>▶ 13:02 점심 도시락(삼각 김밥+핫바+음료수)</p> <p>▶ 14:00 활동 재개, 전단지 전부 배부</p> <p>▶ 16:23 활동 종료 및 정리</p> <p>▶ 활동에 대하여 포스트잇에 감사를 받아 확인함.</p>
2018.5.25	어린이와 젊은 커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해 제작물 준비	인천해원중학교 2-5교실	▶ 이전 활동과 연계하여 더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민

2018.5.26	<p>▶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삶에서 독도가 지니는 가치와 아이들이 독도에게 한마디씩 하는 프로그램 진행</p> <p>▶젊은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독도가 왜 우리 땅이라고 여기는지 인터뷰 진행</p>	경인아라뱃길	<p>▶ 같은 반의 정현서, 기경석 친구가 활동을 도우러 와줌.</p> <p>▶ 08:21 모듬 팀원이 모여 이전 포스트 잇 감삼평에 리플 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함. 팀장 여민서를 중심으로 하여 어른들이 생각한 독도 홍보에 대하여 아이들이 리플을 달게 함으로써 어른과 아이들 사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 함.</p> <p>▶ 책상과 파라솔 설치 진행. 캐리어를 활용하여 필요 물품을 가져와 활동을 진행.</p> <p>▶ 08:50 독도 홍보활동 시작</p> <p>▶ 여민서 팀장의 의견으로 독도에게 한마디를 적은 종이에 대하여 어른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 오는 아이에게 과자를 주기로 함.</p> <p>▶ 젊은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독도 이구동성 퀴즈를 진행함. 김소영 팀원의 능숙한 진행으로 호응이 좋음.</p> <p>▶ 13:01 어머니생고기에서 삼겹살 먹음.</p> <p>▶ 14:00 활동 재개</p> <p>▶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김소영 팀원이 불러 사람을 불러 모으고, 여민서 팀장이 율동을 곁들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냄.</p> <p>▶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주었으며, 간식 물량이 떨어지고 나서도 송시현 팀원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몰려 설명을 해줌.</p>
2018.6.6	독도 활동에 대한 학교에서의 홍보 활동 준비	반도유보라 2차	<p>▶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기 위하여 방안을 모색함.</p> <p>▶ 등교 맞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독도'를 검색해보세요."라고 말하여 관심을 이끌어 보고자 함.</p>
2018.6.7	학교 등교 맞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독도 홍보	해원중학교 교문	<p>▶ 08:00 아침 등교 맞이 행사와 연계하여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준비 시행.</p> <p>▶ 등교 시간인 08:40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이야기를 같이 함.</p>

2018.6.13	지방 선거와 연계하여 투표하러 오는 분들에게 독도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고, 투표 인증샷과 함께 SNS에 올리도록 함.	해원중학교 정문	<p>▶ 투표 인증과 함께 독도 포스터를 같이 찍도록 사람들에게 독도 사진을 나누어 줌.</p> <p>▶ SNS에 독도사진과 함께 도장 투표인증 사진을 올려준 분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드림.</p>
2018.7.2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팸플릿 유포	작전동, 성지초등학교, 화전초등학교 인근	<p>▶ 08:00 어린아이에게 친숙한 송시현 팀원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김소영 팀원을 한 팀으로 구성하고, 조아현 팀원과 여민서 팀장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인근 지역에서 독도 홍보를 진행함.</p> <p>▶ 송시현·김소영 팀원의 경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독도 모래성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같이 하러 감.</p> <p>▶ 여민서·조아현 팀원의 경우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개사하기 등을 아이들과 함께 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보고자 함.</p> <p>▶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학교에서도 같이 불러보도록 가사집을 나누어줌.</p>
2018.7.27	독도박물관에 들러 보다 깊은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함.	서울 독도박물관	<p>▶ 충정로역에 모여서 독도박물관 관람.</p> <p>▶ 자유로운 관람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함.</p> <p>▶ 동도와 서도의 모형을 확인하여 독도의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한번쯤 직접 가보고 싶어짐.</p>
2018.8.10	독도체험활동에 대한 뒷풀이	청라 홈플러스 에솔리	<p>▶ 독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진행.</p> <p>▶ 독도 체험 활동에 대한 솔직한 소감 토론.</p> <p>▶ 차후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진행.</p>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홍보 활동 동영상	동영상	공원 및 초등학교 인근에서 활동한 영상 및 제작 준비 활동 내용 영상
2	독도 홍보 UCC (https://www.youtube.com/watch?v=d8pe3n8Da1k)	UCC	독도 역사홍보와 독도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독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독도가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 홍보 UCC촬영
3	독도 홍보 팸플릿	A4문서 파일 (자료집)	독도에 대한 가치와 소개에 대한 요약집
4	사진첩	ZIP	독도 활동 기간 동안 제작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제작물

3. 성과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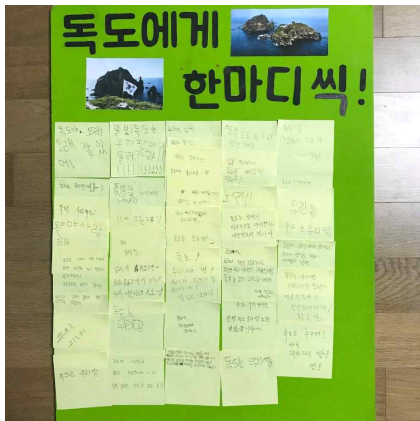
○ 활동 성과

저희들의 활동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독도를 지키는 청년이 될 아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으며, 6.13 지방선거와 함께 SNS활동을 통해 인천 지역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강치호걸스의 활동이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에 대해서 팀원과 선생님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의견의 일치로서 낸 성과는 다른 시민보다도 우리에게 값진 경험을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는 설레임을 선사해주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해 주는 독도체험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의 성과는 최소한 독도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막연히 생각했던 중학생 4명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앞으로도 독도사랑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었다는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뜻 깊은 경험이었던 만큼 저희 안에서 독도 체험활동은 특별한 무언가로 남았으며, 특별함을 간직한 채 독도에 대한 애정 또한 커졌습니다. 저희가 활동하며 만난 수많은 시민들이 만약 저희와 함께한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겨 주었다면 그들 또한 저희와 함께한 시간을 추억삼아 독도 또한 사랑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정말로 작은 일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는 모든 사람들과 만난 것도 아닐뿐더러 10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에 오랜 시간을 기억하기에는 모자란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퀴즈를 함께 풀어준 시민들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독도에게 한마디씩 적어준 아이들이 저희와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또 저희와 같은 일을 해준다면 독도에 대한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과거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가 남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는 아이들에



< 독도 팸플릿을 보고 퀴즈를 맞추어 간식을 먹는 아이 >



<시민들이 적어준 독도 이야기>

게 받는 편지와 독도 사랑을 약속하고 저희를 응원해준 사람들, UCC동영상 정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를 응원해주고 종이에 작은 글로써 독도사랑을 실천해준 시민들이 저희와의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해 준다면 저희들의 활동성과는 10년 뒤 저희의 나이가 될 어린이들이 저희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와 줄 것이고, 이는 전체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내줄 것입니다.

○ 향후 계획

선생님의 지도하에 저희들이 계획한 100일간의 활동은 끝을 맺었으나, 이것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같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설명을 했던 김소영 팀원에 경우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싶고, 자신이 더 많은 것에 설레고 싶다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독도를 방문하고 그것을 SNS에 올려 모



< 뒤풀이 토론 >

두가 한 번쯤 찾는 관광지로서 독도를 홍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독도체험활동에서 어린이들의 인기스타가 된 송시현 팀원의 경우 독도체험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명해주는 봉사활동에 한 번 참가하여 더욱 많은 어린이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져 미래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굳건히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아현 팀원의 경우 독도체험활동이 한 번쯤은 꼭 해 볼 만한 경험이라고 자부하며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독도 체험활동을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주변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른 형태로 독도사랑을 실천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민서 팀장의 경우 활동이 중심

이 된 100일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영상을 촬영하기 어렵기에 독도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민서 팀장의 경우 이번 활동이 100일간에서 끝나는 것에 누구보다 아쉬워하였으며, 본선에 만약 진출한다면 연극을 통해 독도의 미래상을 표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상에 오래오래 독도사랑의 실천모습을 남겨두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여민서	<p>이전까지는 독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홍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으며, 즐겁게 들었을 뿐 내가 직접 홍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독도 홍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나 독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독도체험활동은 대한민국의 흔한 15살 학생인 나도 독도홍보의 주체가 되어봄으로써 누구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활동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 프로그램 전부 직접 기획하고, 독도 홍보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지나쳐주는 시민 한분 한분에게 독도에 관해 설명을 드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가슴 속에서 넘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활동 동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은 평생에 겪어보지 못할 소중한 체험이 되어 준 것 같다. 독도체험활동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활동과 관련하여 학급 친구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평생 동안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다. 활동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더위 속에서도 주변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해준 초등학교 인근에서 했던 활동으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여중생인 나의 설명에 아이들이 경청해주고 함께 즐겨주어 활동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 서울에 있는 독도체험관 탐방에서는 독도 박물관이 인근에도 있음을 처음 알게 되어 좋았으며, 함께 하는 추억을 쌓는 것과 동시에 '독도체험'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듯하여 좋았다. 독도 체험관에는 사진만 보고 조사했던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홍보 활동 속에서 어린아이들한테 독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다는 제스처를 보내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어 내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 너무 너무 기뻐다. 팜플릿을 나눠줄 때에도 길거리의 시민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 보람을 느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p>

김소영	<p>나에게 있어 독도체험활동의 시간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도 체험활동은 나를 많은 부분에서 설레게 해주었는데 첫 번째 설레임은 독도 홍보과정의 준비 과정이었다. 독도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물을 만들고 간식을 포장하면서 이걸 받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떨까 상상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시간이었다. 많은 시민들에게 독도를 더 자세히 알린다고 생각 하니 내가 선생님이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물론이었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불안감도 있어 더욱 필사적이었던 것 같다. 그 필사적이었던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두 번째 설레임은 독도체험활동의 첫발을 내딛을 때였다. 독도 홍보 활동을 하러 처음 나갔을 때, 홍보지를 나눠주는 나의 모습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아니면 잡상인으로 여겨 사람들이 화를 낼까? 여러 생각이 들어 두렵고 무서웠는데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시민분들이 나 혼자 설명하는 기분을 넘어 함께 활동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열심히 체험에 임하셔서 너무 신나고, 재밌고, 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경험이 되어 주어 너무나 설레고, 다음 활동에 대해서 더 큰 의욕을 샘솟게 해주었다. 이는 다음 체험 활동에서 더욱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서 나가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해주어 나를 성장시켜주는 하나의 경험이 되준 것 같다. 세 번째 설레임으로는 경인아라뱃길에서의 활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며, 함께하는 활동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와 친구들이 함께 생각해서 만든 독도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할 나위없는 뿌듯함과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인생의 경험을 주었다. 나의 독도체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과 함께하여 완성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였다. 설레는 경험 속에서 나를 조금 더 다듬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팀원들 및 역사 선생님과 함께 독도 체험박물관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 선생님에게 독도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독도 팜플릿을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나누어 주면서 보다 성장해 있는 나를 느껴 더 뿌듯한 시간이었다. 독도 체험 활동은 독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너무 뜻깊고 좋은 활동이었고, 이 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독도에 많은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송시현	<p>독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 홍보를 하기 위해 알아본 것이 처음이어서 그 자체로도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독도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둘도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실 다른 팀원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던 나에게 독도에 대한 설명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처음 독도체험활동을 하러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리고, 시민분들이 지나칠때마다 나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어떻게 말하지? 라는 걱정이 먼저 되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같이 홍보를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어 나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었다. 시민들이 퀴즈를 맞춰줄 때마다 어딘지 모</p>

	<p>르게 기뻐했으며, 어린아이들이 내 설명을 경청해 주고 재밌어 해주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이어서 그런지 아직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서 두 번째 홍보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나갔는데 한 번 해봐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고 부족했던 부분도 다 채워 가니까 잘 설명할 수 있었고 사람들도 많아서 저번보다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독도 박물관에 가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설명도 들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거 같았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독도에 관한 팸플릿을 만들어 학교에 등교하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팸플릿을 나누어주었고 혹시나 못 받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반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었고 못 받은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나눠줘서 뿌듯하였고 한 번씩 읽어보신 다는 말을 해주셔서 고맙고 뿌듯하였다. 이 독도체험활동을 위해 한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너무 의미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였고 내가 열심히 한 이 홍보로 조금이나마 시민 분들이 독도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너무나 뿌듯할 거 같다.</p>
조아현	<p>2학년이 되고 학기 초에 저희 넷은 어떻게 보면 무작정, 그렇게 독도 홍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 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 빠고 싶지는 않다고 조금은 무책임하게 생각했던 나였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뭔가를 이뤄 가면서 힘을 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15살의 봄·여름 잊지 못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독도 홍보 대회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자유 공원, 아라뱃길, 독도 박물관 등을 다니며 독도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을 해왔다. 솔직히 처음에는 누가 짜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정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상 활동을 시작하고 나자 부담감은 사라지고 정말 뿌듯함만 남았다. 활동을 하며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 한 일들도 일어나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뿌듯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독도체험활동을 하기 전에는 스스로도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게 아쉬웠는데 대화를 통해 독도에 관련 된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나 활동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예를 들어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어린 아이들이 저희의 설명에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 할 수 있었다는 게 더더욱 기뻐고, 내가 궁리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는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보람찬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해원중학교에는 등교 맞이 행사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 시간에 학생들에게 독도 팸플릿을 나눠 주는 시간을 가졌었다. 친구들이 팸플릿을 읽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치호걸스 4명이 조금 더 돈독해졌다고 생각되었다. 활동을 하는 동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해가며 문제를 해결했던 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이런 일을 제외하고도 독도 홍보 활동을 통해 깨달은 것이 정말 많고 앞으로도 독</p>

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생각하고 싶고 독도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대중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



< 우리들 4명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했던 2018년 독도체험활동 >



< 우리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독도사랑은 계속해서 퍼져 나가 줄 것입니다 >

5. 건의사항

○ 독도체험활동을 100일간 하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우선 비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독도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되었기에 소소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는 간식은 포장하여 100개가 넘었으며, 차후에는 300부씩 인쇄하는 팸플릿 인쇄조차 부담이 되었습니다. 독도체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조금만 덜 부담이 되도록 비용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독도체험활동에 있어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 줄 수 있도록 적어도 팀장 한명은 독도를 직접 다녀올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생생한 체험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떨림을 가져오게 해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팀에 한 명 정도는 독도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러 장소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독도 홍보의 모습을 공원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런 이벤트가 전부 서울역이나 시청 같은데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독도 체험과 관련지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독도가 보다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버스 광고나 대형 마트에 우수작을 전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독도와 관련된 상품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유용한 것들을 판매하게 된다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독도가 관심사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고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툰을 무료로 배포한다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